

〈제 689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의 직무연수와 6개월의 수습근무를 마친 16명의 신입행원들은 사령장을 받고 정식 행원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현장에서 금융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송종욱 은행장은 진정한 은행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에 성실히 임한 신입행원들을 격려하며 한명 한명에게 휘장을 달아주며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지역민과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멋진 은행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열정과 끈기로 광주은행의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 다스코

### ◆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우뚛’



다스코(대표이사 한상원)가 최근 태양광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5억원 규모의 안면도태양광발전단지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다스코는 앞서 새만금지역에서 350억원 규모, 고흥만·해창만 지역에서 해상태양광프로젝트에 400억원 규모의 수주를 성공한 바 있으며, 이번 안면도 태양광발전단지 수주까지 합하면 총 95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한상원 대표이사는 그동안 사업확장시 안정된 시장에 진입하기보다 불모지였던 시장에 혁신기술로 진입하며 사업에 내실화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의 SOC사업은

30년간의 경험과 연구개발의 성과로 시장 1위 기업이 됐고, 데크PL사업도 5년여간 각고의 노력 끝에 시장 2위 기업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에너지 사업 또한 지난해부터 흑자수주를 이룩하고 새만금프로젝트에서도 성공이 예고되고 있다.

### 모아종합건설

#### ◆ 박치영 회장 전남대 명예 박사 학위



모아종합건설 박치영 회장은 지난달 29일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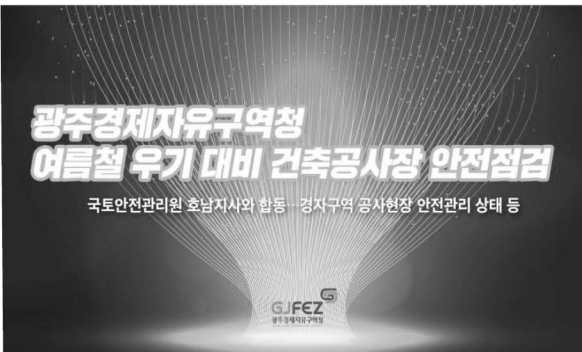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박 회장의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건설계 및 예술계·언론계·학계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하객들과 전·현직 총동창회장, 보직

교수들까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치영 회장은 학위를 받은 뒤 “국가 경제가 여러 차례 어려움에 빠지는 등 대내외적인 위기가 몰려왔지만 오로지 정도 경영으로 100년을 영속할 기업을 일궈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하며 더욱 정진하겠다”며 “전남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 여름철 위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철)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와 합동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중·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배수계획 수립 ▲수방자재(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확보상태 ▲절·성토면 유실 여부

▲옹벽 및 석축 등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등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광주테크노파크

#### ◆ 펩타이드 의약소재 개발 선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선민)는 지난달 28일 입주기업이자 코스닥 상장기업 애니젠(주)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제1차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인 '당뇨·비만 치료용 신규 이중 작용제 펩타이드 의약소재 개발 및 GMP 생산을 위한 공정분석플랫폼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암·당뇨·골다공증 등 난치성 질환과 감염병 백신·기능성 화장품·의료용 식품 등의 원료로 재조명 받고 있는 고순도 펩타이드의 수요 급증에 따른 대량생산 선점을 위한 '펩타이드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기획을 추진한 바 있다.

김선민 원장은 "펩타이드 의약 소재가 개발되면 당뇨와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지역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역협회

#### ◆ '아마존 플랫폼 활용' 오프라인 특강 재개



광주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재)는 전남도와 함께 진행하는 제2차 전남무역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무역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로 개최되다가 올해 초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글로벌 전문 셀러인 (주)케이존 김성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마존 실무 특강을 진행했으며, 아마존 플랫폼 특징, 아마존 빅데이터 분석방법, 아마존 판매전략 등이 주 내용으로 다뤄져 아마존 판매에 관심이 많은 농수산물 및 생활용품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권재 본부장은 "이번 무역아카데미가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과 해외시장 수출성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니 수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전보건공단

### ◆ 광주·전남 건설현장 안전모 착용 캠페인 전개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광주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난달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사·민·정 공동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광역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지역 대표 건설업체인 중흥토건(주), 안전관계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건설현장의 캠페인 참여 유도,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모 착용수준 및 안전시설 집중 점검, 우수현장 발굴·포상 등 안전모 착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은 즉시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자체 개선 및 공단 확인을 통해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560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조영근(하이터치경영연구원장) 주제: 성공을 부르는 운의 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7월1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조영근 하이터치경영연구원장을 초청 <성공을 부르는 운의 힘>이란 주제로 제156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세상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다. 그래야 생산성도 높고, 분위기가 좋아진다.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낸다. 화를 낼때는 15초밖에 안걸리지만 그러나 15분~25분 이면 자연스럽게 화가 풀린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진화의 힘은 생존이다. 세상에서 기술은 신과 같고, 제도는 중세이며, 정서는 석기시대고 이것이 지금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 상황에 지배되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에 마비되는 것은 이성이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운과 기량의 결합이다. 運7技3 이란 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용기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技를 氣(분위기)로 바꿔야 하고 氣는 힘이 있어야 하며 힘은 知力, 動力이며 이것은 의욕이 있어야 하며 의욕은 마음에서 나온다.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행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화(관상)에서는 얼굴만 보았지 시대의 흐름을 못봤다.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대사가 있다. 인간은 감정때문에 바람을 보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매순간 행위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한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다. 마음은 생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한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중장년센터 제3회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달 28~30일 3일간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회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재취업 구직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6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_기업형 드림청년 직무역량강화 교육〉



본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_기업형은 이틀간에 걸쳐 11기 드림청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기업형에 참여중인 드림청년의 직무별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유사 직무에서 일경험에 참여 중인 청년들 간 공유 활동과 함께 SWOT 분석을 진행해 자신을 확인하고, 목표 설정과 기간별 계획

수립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방향을 찾아 인생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사무국 일지(6.27 ~ 7.1)

6.27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현장 간담회(~7/1)</li> <li>● 고용·복지+센터 운영위원회</li> <li>● 광주형일자리 기업 재평가 심사회의</li> </ul>	6.3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직무 역량강화 교육</li> <li>● 광주광역시 제2차 청렴사회민관 실무협의회</li> </ul>
6.2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센터 제3회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li> </ul>		
6.29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이임식 참석</li> <li>● 중장년센터 전국회의 참석</li> </ul>	7.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60회 금요조찬포럼</li> <l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시스템 설명회</li> </ul>



##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 심화

- 경총,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 -

### <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며 노동력 유휴화 심화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 < 시사점 >

-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시급
- 유휴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필요

□ 경총은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7월 5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2017.1q→2022.1q) 고용 흐름의 특징을 ①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②노동력 유휴화 심화, ③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①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 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 (연령대별) 지난 5년간(2017.1q→2022.1q)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다.

※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

구분	전체 취업자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7.1q(A)	2,610.0만명	385.0만명	563.5만명	676.1만명	618.3만명	367.1만명
2022.1q(B)	2,736.9만명	397.9만명	527.5만명	629.3만명	650.6만명	531.7만명
증감(B-A)	126.9만명	12.9만명	-36.0만명	-46.8만명	32.3만명	164.6만명
기여율	100%	10.2%	-28.4%	-37.0%	25.5%	12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시간별)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3%나 증가했다.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5년간('17.1q→'22.1q)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분(61.8만명) 중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0.1%(37.2만명), '청년층(15~29세)'이 19.7%(12.1만명)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보건·복지, 공공행정)'이 44.0%(27.2만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2.2%(13.7만명)를 차지

< 지난 5년간 취업시간별 고용 증감 및 증가율 >

구분	전체 취업자	주36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주15~35시간	주36시간 이상
2017.1q(A)	2,610.0만명	402.2만명	93.2만명	309.0만명	2,157.8만명
2022.1q(B)	2,736.9만명	593.1만명	155.0만명	438.1만명	2,082.8만명
증감(B-A)	126.9만명	190.9만명	61.8만명	129.1만명	-75.0만명
증가율	4.9%	47.5%	66.3%	41.8%	-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업종별)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고용 증가 기여율(준공공부문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은 68.7% (87.1만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업종별 고용 증가 기여율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6.6%, 농림어업 24.2%, 운수·창고업 1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림어업 기여율이 높은 것은 he업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하던 가구가 경기 침체로 주종사 분야를 농업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② (노동력 유휴화 심화)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5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지난 5년간('17.1q→ '22.1q) '쉬었음'은 33.5% 증가했고, '취업준비'는 19.8% 증가
-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이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지난 5년간 비경제활동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단위: 만명) 및 증가율 >

구분	비경활 인구	쉬었음	취업준비 <sup>1)</sup>	육아	가사	교육기관 학원통학	연로	그 외 <sup>2)</sup>
2017.1q(A)	1,655.6	184.4	65.8	131.6	607.3	366.2	220.9	79.3
2022.1q(B)	1,685.1	246.2	78.8	108.8	613.0	306.7	257.2	74.3
증감(B-A)	29.5	61.8	13.0	-22.8	5.7	-59.5	36.3	-5.0
증가율	1.8%	33.5%	19.8%	-17.3%	0.9%	-16.2%	16.4%	-6.3%

주: 1. 비경제활동 사유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를 합한 수치(통계청)

2. 비경제활동 사유 중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기타」를 합한 수치

3.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③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2017.1q)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8%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16%보다 높게 나타남(한국은행).

-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2017.1q)보다 4.0%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5년간 월별('17년 4월→ '22년 4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고용흐름도 분기별('17년 1분기→ '22년 1분기)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 경총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 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 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규제 신설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2-for-1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같은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또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